

20대 국회 청년실업 해소·일자리 창출에 사활 걸어라

청년의 눈물

청년의 좌절 막아야

광주지역 청년 절반 가량은 청년정책 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꼽았다. 그만큼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광주시가 지자체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한 '2015년 광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응답자 1200명)에 45.3%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직업상담 및 직업 진로지도 확대(14.7%), ▲청년문화 활동 지원(12.8%), ▲청년 개인의 일상생활비 보조(7.8%),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보장(7.0%), ▲청년 창업지원(6.1%), ▲대학 등 교육기관 지원(5.4%) 등의 순이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직업 상담, 창업지원 등 사실상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해달라는 응답자는 66.1%에 달한다.

이처럼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청년

정부·정치권 알맹이 없는 정책 되풀이 한숨만 쌓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지역인재 할당 법제화도 시급

일자리 정책은 뚜렷하게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4·13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지역 후보자들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재원마련 부족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총선 당선인들은 제20대 국회와 출범함과 동시에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세부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제20대 국회의 최대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빛가람)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등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여건을 만드는 것도 주요 해결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외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 비율은 ▲2012년 7.3%(82명) ▲2013년 9.9%(151명) ▲2014년 10.8%(158명) ▲지난해 13.5%(2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이 혁신도시 이전기업에 지역 청년 고용률 제고를 요청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해자 의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행 의지를 밝히고 보다 많은 광주·전남지역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모집 요강에 지역인재 채용 목표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20대 국회 원내대표에 추대된 박지원 의원,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김성식 당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비급 원내대표...캐스팅보터 넘어 국회 주도 기대

국민의당 지도부 진용 구축 박지원 '경제 문제에 역점'

국민의당이 연말까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27일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 김성식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으로 합의하면서 총선 이후 당의 원내를 진두지휘할 지도부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3당 중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지도부 체제 정비를 끝냈다.

국민의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이날 합의추대된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운영의 '캐스팅 보트'인 제3당의 원내 전략을 지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사상 초유 원내대표 3선이라는 진기록까지 세

우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2010~2011년), 민주통합당(2012년) 시절 각각 원내대표를 두 차례 역임한 바 있어 원내 전략에는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륜과 노련함에 성실성까지 더해져 원내 제3당으로서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 판단이다. 여야 사이의 '외출타기'를 넘어 정책과 현안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박 원내대표가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조만간 시작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박 원내대표의 선전에 따라 국회 지형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추대된 후 기자회견에서 "5월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다. 물리적으로 6월1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5월 중으로 (20대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향후 원내 전략과 관련, "경제 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면서 "저는 경제에 전문 지식이 없지만 김성식 신임 정책위의장, 주변 학자들이나 소속 의원의 조언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 고통, 노동자의 아픔, 서민의 생활고를 국회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언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차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제1당이 되어 하는 게 민의이지만, 대화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옥진의 '그림 생각'

수묵화의 현대화...보성 차밭이 생생

지 하는 마음이 든다.

옥산 김옥진(1927~)의 '차밭' (1989년 작)은 전통적인 남종화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차밭을 따는 모습을 정경계 묘사한 수묵담채화이다.

전통적인 남종 수묵화가 먹색만으로 대상의 빛깔을 함축시켜 표현하면서 먹의 농담으로 원근감이나 공간감을 나타낸다면 수묵담채화는 먹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얇게 채색한 그림, 밑그림을 그린 후 얇게 채색하거나, 채색과 형태 그리기를 번갈아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대상을 묘사한다.

전통남종화가 화가의 몸에 깊이 깃든 문기와 심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어서 다소 관념적인데 비해 옥산의 '차밭' 풍경은 요즘의 보성이나 강진의 너른 다원에서 실제 볼 수 있는 풍경이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의재 허백련이 후진 양성을 위해 만

김옥진 작 '차밭'(1989년 작)

든 연전회에서 배출된 굵직한 화가로 손꼽히는 옥산은 그 문하에서 전통적 형식을 익혔지만 고전적 엄격성과 관념적 양식에서 벗어나 실제적 감흥을 중시하는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옥산은 그림의 실감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색하였고 사실성에 입각한 분위기의 작품이 두드러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박지원 맞수 찾기...새누리·더민주 원내대표 선출 부담백배

국민의당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합의 추대된 것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 의원이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협상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그를 상대하려면 여당과 제1당의 상대 원내대표도 그에 걸맞은

정치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양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치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타협에 능하리라 본다"면서 "아마 캐스팅보터로서 국민의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적임자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원내대표 후보들도 벌써 각자

경력이나 박 의원의 인연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더민주는 다음달 3일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 및 당무위를 잇따라 소집,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또 이튿날인 내달 4일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백원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백원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